

첨단산단내 과학기술원 옆에 국립 광주과학관 짓는다

국비등 1,294억 투입 2011년 완공키로

■국립 광주과학관 위치도

광주와 전남·북 등 국토 서남권의 과학기술 문화 확산의 중심이 될 광주국립과학관 건립 부지를 광주 첨단과학산단내 내로 부지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광주시에 과학기술부는 18일 "광주국립과학관 건립 부지를 광주 첨단과학산단내 내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근으로 확정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설계 등을 거쳐 2009년 5월 착공, 2011년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립부지는 광주과학기술원의 화사과정 신설을 위해 준비했던 북구 오룡동 1-4 일대 4만평이다. 광주시 등은 이곳에 국비 1천144억원·시비 280억원 등 모두 1천294억원을 들여 연면적 7천평의 과학관을 건립, 전시시설·교육연구시설·수장시설·기타 편의시설 등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곳은 광주과학원을 비롯해 입주자 예정된 광주과학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 ETRI 광주센터, 광주디자인센터 등 연구기관이 인접해 있어 과기부의 '과학기술인프라 클러스터화' 구축에 적합한 것 등이 고려됐다. 국토 서남권의 교통 요충지로 인근 주요도시와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한 교통여건도 갖췄다.

〈위치도〉

건립부지는 또 토지보상에 따른 주민하찰 소지가 적고 매입절차가 간단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오는 9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끝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2009년 5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국립과학관 건립은 2005년 6월 과학기술부의 방침 결정과 2006년 1년간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6년말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비 12억원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확정됐다.

국립과학관과 국립대구과학관과 함께 서울과 대전, 과천에 이어 전국에서는 4번째로 추진된다.

국립과학관과 국립대구과학관

이 가운데 광주과학관은 평균 소음 85데시벨을 기록해 대구과학관과 함께 전국 공항 가운데 가장 시끄러운 지역으로 분류됐다. 광주공항은 지난해 4분기 82데시벨보다 3데시벨이 높았으며, 산, 포항 등 8개 공항의 일부 측정망이 허용기준치인 75데시벨(WECPNL)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광주공항은 평균 소음 85데시벨을 기록해 대구과학관과 함께 전국 공항 가운데 가장 시끄러운 지역으로 분류됐다. 광주공항은 지난해 4분기 82데시벨보다 3데시벨이 높았으며,



우리 아생화 보러 오세요

광주시 남구청이 송암동사무소 회관에 조성해 19일 개장하는 우리 꽃 아생화 체험학습장. 꽃밭 325㎡에 금낭화·원추리·국화·봉선화·조롱박 등 80여종 8천570본이 심어져 있다. 남구청은 자연해설가를 배치해 어린이들의 견학 코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시 남구청이 송암동사무소 회관에 조성해 19일 개장하는 우리 꽃 아생화 체험학습장. 꽃밭 325㎡에 금낭화·원추리·국화·봉선화·조롱박 등 80여종 8천570본이 심어져 있다. 남구청은 자연해설가를 배치해 어린이들의 견학 코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버스승강장이 음악 감상실?

오치 2동 주민자치센터 서산초등 앞 승강장에 태양열 음향기 설치

"우리 동네 버스 승강장은 감미로운 음악 선율이 흐르는 음악 감상실입니다."

광주시 북구 오치 2동 서산초등학교 앞 버스 승강장이 작은 음악 감상실로 변신했다.

광주시 북구 오치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술)는 18일 이 동네 양자아파트 앞 버스 승강장을 음악실로 바꾸었다.

위원회는 주민 성금 80만원을 들여 이 승강장에 자동 인체감지

적외선 센서가 부착된 태양열 음향기 1대를 설치했다. 센서는 주민들이 승강장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감지해 클래식·영화 주제 가 등 20여 곡을 들려준다.

자치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승강장을 시와 그림·사진이 있는 갤러리형으로 바꿔 시선을 끌었다.

김용술 위원장은 "주민들이 승강장에서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음향기를 설치하게 됐다"며 "주민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다른 승강장에도 음향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공항, 전국공항 중 가장 시끄럽다

공군기 영향... 소음 85데시벨, 허용기준치 넘어서

공군비행장과 함께있는 광주공항 주변지역이 전국 14개 공항 가운데 가장 소음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광주, 김포 등 전국 14개 공항 주변에 설치된 96개 지점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의 올 1·4분기 기록을 분석한 결과 광주, 김포, 제주, 김해, 청주, 대구, 군

산, 포항 등 8개 공항의 일부 측정망이 허용기준치인 75데시벨(WECPNL)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광주공항은 평균 소음 85데시벨을 기록해 대구과학관과 함께 전국 공항 가운데 가장 시끄러운 지역으로 분류됐다. 광주공항은 지난해 4분기 82데시벨보다 3데시벨이 높았으며,

광주공항의 우산동 지점은 98데시벨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소음이 극심한 공항주변 지역에 올랐다.

광주공항 주변에선 우산동·덕흥동·치평동·송대동·분덕동·신촌동·송정동 등 7개 자동 소음 측정망이 가동되고 있다. 평균 소음도가 75데시벨 이상을 기록하면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분류돼 적절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이은미 기자 emlee@

광주천 등 639곳 매주 2차례 연막 소독 市, 장마철 전염병 예방관리체계 돌입

광주시는 장마로 인한 수인성 및 식품 매개성 전염병 발생에 대비해 예방접종 등 전염병 예방과 방역 소독 등 시민건강관리 특별 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19일부터 병의원, 약국 등으로 구성된 200개 질병정보 모니터링과 153개소의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해 전염병원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기로 했다.

시는 일본 뇌염 등 법정전염병 예방접종(4만8천명), 집객업소 종사자 등 취약계층 주민 2만7천명에 대한 수인성 전염병 보건조사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호흡기로 전염되는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기 위해 대형건물 135곳의 냉각수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와 소독을 강화한다.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의 소독상태 상시점검과 잔류염소 0.4ppm유지 등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시는 또 60개반 145명으로 구성된 자율방역단을 활용해 광주천 고수부지·하수구·가축사육장 주변 등 취약지 639곳에 대한 분주 및 연막 소독을 주 2회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마철로 접어들면 수인성 전염병과 식중독 등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시민들도 음식 익히기와 외출 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동구 '전염병 경보체계'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광주시 동구청이 국내에선 최초로 실시했던 '전염병 조기 경보체계 시스템'(이하 전염병 경보체계)을 국제학술대회에 발표한다.

동구청은 18일 "전남대 의과대학 최진수·권순석 교수와 공동 연구·개발한 동구 '전염병 경보체계'가 '전미 공중보건협회'(The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의 오는 11월3일 135차 연례학술대회에 발표 논문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진대·기독교 병원 등 9개 병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공동에 전염병 환자 수를 일주일 단위로 조사해 결과를 지역사회 전염병 발생 자료로 활용하는 체계이며, 전염병 발생 동향을 동구청 홈페이지(http://www.donggu.gwangju.kr) 등에 실시간 공개한다. 기존의 국내 전염병 감시 체계는 의무 신고 규정이 허술해 신고율이 절반에도 못 미쳤고, 전국 단위로 조사됐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전염병 정책 마련에 어려움이 컸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노인 전용구급대 운영 남구소방서 20일부터

광주 남부소방서는 노인 구급수요 증가에 따라 구급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인 전용구급대를 20일부터 운영한다.

노인 전용구급대는 남부소방서 관내 65세 이상의 노인을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을 이송하게 되며 비용은 무료다.

사전 예약도 가능하며 이송 대상자가 원하는 의료·요양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다. 예약이나 이용 안내는 국번 없이 119나 남부소방서(613-8643)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에 토지정보 제공 市 내달부터 홈페이지에

광주시가 다음달부터 시청홈페이지(http://gwangju.go.kr)를 통해 광주지역 토지정보를 제공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개별공시지가 등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에 들어간다.

시는 앞서 지난 2003년부터 사업비 6억1천400만원을 투입,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과 토지정보망을 통한 하는 사업을 지난해 완료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쓸수록 돈 버는 냉·난방기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600평 공장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 기술

냉·난방기 1/3로 줄었다
미국특허, 6단계 히트펌프로 템피아 유지비는 1/3입니다
1/3기술은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국특허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냉·난방 에어컨 템피아만 만든 세계 최초 6단계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유지비 절감은 물론 시원한 냉방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한정수량 예약판매 무상 지원금 혜택
46만원~200만원까지 무상지원
한국전력에서 원격제어 냉·난방기를 무상 지원해 드립니다. (일부품목 한정)

10평형~160평형까지 **항공가습기 공기청정기**

에어컨 특별할인 판매 실시
스탠드형 냉·난방 에어컨(15평~160평형) 백열이형 에어컨 (10, 13평형) 백열이형 에어컨 (6, 8, 10평형)

조달형 우수 조달물품 지정
▶ 업계 최초 템피아 특별 비리로 가법계 보증금 10% 납부하시고 계약기간 만료후 제품의 소유권 이전 및 보증금을 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 무이자 할부 판매 (12개월)
▶ 심상, 대우, 기은캐피탈 12, 24, 36개월 할부 가능

공기과학 냉·난방에어컨 **TEMPIA**
062)955-4222, 080-701-7117

Gallery RODEM 직수입 안티크 전문매장 로템갤러리
각구의 **가격을 한층 높여 드립니다.**

각종 고급 침대
●진열상품 30%~최고70% ●특별기획상품행사

소파, 식탁, 의자, 테이블, 침대, 소파, 소품, 침구, 커튼

찾아오시는 길: 1가목병원 - 백문동 - 남부소방서 - 미애역행선 - 로템갤러리

대표전화: (062) 653-4022
물류센터: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253-1